

“무등산 숲길에서 만난 인문학과 자연, 힐링의 시간”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 성료

이틀간 중심사지구 일대에서 열린 인문·자연 주제, 62개 활동 전개 각종 부스 운영…즐길거리 ‘다채’ “숲속서 즐기는 이색축제” 호평

“숲속에서 책을 읽고, 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을 느끼니, 마음 깊은 곳까지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1일 찾은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산 국립공원 일대에서는 인문학과 예술,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등산객들 사이로 책을 펼친 이들이 자리를 잡았고, 고요한 숲길 곳곳에서는 음악과 연극 공연이 잔잔히 울려 퍼졌다.

동구가 주최한 제3회 무등산 인문축제 ‘인문 For:rest’가 ‘꽃 핀 쪽으로 뽀짝, 희망으로 뽀짝’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무등산 중심사지구 일대에서 열렸다. 등산로 곳곳에는 ‘기후위기 시대’ 환경과 인문학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특히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를 조명한 프로그램이 다수 마련돼 주목을 받았다. 한강 작가의 작품과 글, 사진으

로 구성된 ‘한강의 숲에서’는 그의 문학 세계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축제 첫날에는 일본 기자와 독자 등 70여명이 한·일 문학기행의 일환으로 인문축제에 참여, ‘소년이 온다’를 비롯한 오월문학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민석(25)씨는 “지역 출신 한강 작가의 소설을 읽으며, 5·18을 비롯한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민주시민으로서 후세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되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생물 다양성 대탐사를 비롯해 야생동물 미술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무등산 동물님들’ 등 지역 대표 명산인 무등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고,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는 프로그램도 이어져 어린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오도훈(주월중 1년)군은 “축제를 통해 무등산의 아름다움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됐다”면서 “우리와 미래세대가 살아갈 지구를 위해서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며 환하게 웃었다.

명사를 초청한 인문 토크와 청년 독서 동아리와 함께하는 ‘청년 문학 버스킹’, 자연을 주제로 한 사생대회, 폐 농약통 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뮤직공연’ 등 6개 테마 62개 활동이 이틀동안 전개됐다. 돗자리와



1일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산국립공원 중심사지구 일대에서 열린 제3회 무등산 인문 축제 ‘인문 For:rest’에서 ‘청년 문학 버스킹’이 진행되고 있다.

피크닉 용품을 챙겨 숲속에 자리잡은 방문객들은 가족, 지인과 함께 주말의 여유로움을 만끽하며 힐링의 한때를 보냈다.

행사장 주변에는 지역 서점과 환경 관련 협회 및 단체의 체험·놀이 부스가 운영돼 시민들에게 각양각색의 즐길거리를 선사했다.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동아리 ‘오다가다’는 ‘지속가능’을 주제로 자체 제작한 그림책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상세히 설명했고, 즉석사진 부스도 마련해 방문객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심예진(21)씨는 “감염병 예방과 기후 환경 문제, 남녀평등 등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대주제 아래 세계시민의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예비 보건의료인으로서 학우들과 함께

지역 축제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펼치게 돼 뿌듯하다”고 강조했다.

축제 기간 셔틀버스가 운행되며 ‘차 없는 환경 축제’의 의미를 더했으며, 휠체어와 유모차도 무상으로 대여해 모든 방문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무등산을 찾아온 등산객들도 자연스럽게 축제에 참여하며 활기를 북돋웠다.

노훈진(72)씨는 “시끄러운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독서와 각종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휴식을 취하니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다”며 “인문과 환경의 가치를 되새기고,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사유할 수 있는 이색적이고 특별한 축제”라고 강조했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치매가족 위한 ‘달빛교실’ 호응 서구, 지역 최초 교육 프로그램

광주광역시 서구가 지역 최초로 치매가족들을 위한 야간 교육 프로그램 ‘달빛교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매주 화요일 서구치매안심센터에서 ‘달빛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달빛교실’은 직장 등의 이유로 주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치매환자 가족과 돌봄 종사자들을 위해 기획된 야간 교육 프로그램이다.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돌봄 경험을 공유하며 정서적 지지를 나누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 단계별 이해’, ‘돌봄 접근법’, ‘정서적 지원’, ‘문제 상황 대처법’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돼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달빛교실은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해경 서구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가족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제2회 청소년의 날 ‘더 빛날 데이’ 서구, 청소년·학부모 등 150여명

광주 서구가 지역사회와 함께 제2회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며 청소년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서구는 지난 달 31일 서빛마루문예회관에서 ‘더 빛날 데이(The 빛날 Day)’라는 주제로 제2회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제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에 따라 두 번째로 열린 자리로, 청소년과 학부모, 청소년지도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청소년들의 성장을 함께 축하했다.

특히 이번 행사의 핵심 주제는 ‘감사’로, 청소년들이 평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던 부모, 선생님, 친구들을 직접 초청해 댄스, 밴드, 마술쇼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감사의 마음을 무대 위에 담아냈다.

서구는 이처럼 청소년의 흥미와 적성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창의·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목공술클’, ‘라이징 뮤지션’, ‘3D메이커스’ 등 실용 중심의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며, 하반기에는 풍암동에 청소년자율공간을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길거리 농구 대회, 어울림마당 등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다채로운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준명 기자



세계 금연의 날 맞이 합동 캠페인 광산구, 공군제1전투비행단 대상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지난 달 28일 제 38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대상으로 광주금연지원센터와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세계 금연의 날’은 매년 5월31일로,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캠페인은 군 장병들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위해 △맞춤형 금연 상담 △금연 보조제 및 행동 강화 물품 지원 △폐활량 및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 독려 및 홍보 등을 진행했다.

광산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연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상철 기자

“지산딸기 맛보러 복구로 오세요”… 수확 체험행사 성료

주민·공직자 등 50여명 참여 무농약·친환경 농법으로 재배

광주광역시 북구가 지역의 대표 특산품인 ‘지산딸기’를 알리기 위한 수확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1일 복구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부터 이틀간 효령동에 위치한 지산딸기 재배 농가에서 주민 및 공직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산딸기 수확 체험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위주로 출하되는 지산딸기를 지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광주 대표 농특산물의 대중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오전 9시부터 11시30분까지 △지산딸기 설명 △딸기 수확 및 시식 △가공품(청·홍초·잼) 품평 △체험 만족도 조사 등으로 구성된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체험에 참여한 한 주민은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달고 맛있는 딸기가 재배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며 “딸기 가격을 듣고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한 입 먹어 보니 절로 고개가 끄덕



광주광역시 북구가 지난 달 31일부터 이틀간 북구 효령동 지산딸기 재배 농가에서 ‘지산딸기 수확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광주 북구 제공

여지는 맛”이라고 말했다.

지산딸기 맛의 비결은 최고급 품종인 ‘죽향’을 클로렐라 배양액을 활용한 무농약·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는 데 있다.

또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저온기에 생산되는 딸기의 품질향상을 위해 타 이백 농법을 적용하는 등 육묘부터 재배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동일 품종의 딸기보다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다는 특징이 있다.

이 같은 철저한 관리의 결과 올해 지산

딸기는 190여톤이 수확돼 약 4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단가로 판매되고 있다.

올해 북구는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지산딸기 육성을 활성화하고자 친환경 비료, 포장 용기, 친환경 하우스 필름, 납품 물류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추후에는 기후변화 대응 시설 장비 설치 및 신규 체험 프로그램 발굴 등 지산딸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승우 기자

남구, ‘살롱 드 사직’ 1호점 개장

광주광역시 남구가 사직동 일원에 북고풍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살롱 드 사직’의 1호 살롱이 문을 열었다.

1일 남구에 따르면 살롱 드 사직 프로젝트의 1호 결과물인 통기타&국악 살롱

이 지난 달 28일부터 문을 열고 사직동 탐방객을 맞이하고 있다.

빈집을 새롭게 꾸며 전통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며 분기에 한 차례 이상씩 국악과 통기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또 살롱 안에서는 광주 지역

토속 음식과 손수 제조한 전통주도 즐길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현재 조성 중인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뿐인 사직동 시간우체국을 중심으로 음악과 인문학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살롱이 문을 열면 다채로운 체험과 볼거리 제공이 가능하다”면서 “사직동 관광 명소가 뿐만 아니라 구도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



다.

이정준 기자